

충청남도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방향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minerba64@naver.com

이정필 · 김남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이 연구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 참여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CONTENTS

1. 에너지전환과 시민참여
2.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사례
3.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4. 정책 제언

요약

- 충청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에너지시스템의 특성 속에서 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역시 탈핵,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으로 국가에너지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 국내외에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시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사례 조사를 비롯한 수립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선행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방법론을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함
- 국내 숙의적 시민참여 사례의 경우, 대구시(공론조사), 전라북도, 충청남도, 전주시, 광명시(이상 시나리오 워크숍)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충청남도 및 시·군에 적합한 방법론과 프로그램을 제시함
-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가이드라인은 각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광역/기초, 도시형/농촌형, 시민사회 활성화 수준)을 감안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으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에너지 자치분권 실현,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에너지센터 역할 등)를 제안함

01

에너지전환과 시민참여

1. 에너지전환

- 충청남도를 비롯한 몇몇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는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원의 변화만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 생태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 전환 과정에서의 원칙은 '에너지 민주주의'라 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관 주도가 아니라 시민·주민 참여와 협치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표 1] 지역·공동체 에너지시스템 구상 (Rüdinger, 2017)

규범	에너지 민주주의
지방정부 수준의 전략	① 분권·자치 ② 지역화·공유화
시민사회 수준의 전략	① 공동체 프로젝트 ② 참여 거버넌스

- 전국 시·도 차원에서 법정계획인 지역에너지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초 지자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과천시, 순천시, 전주시, 안산시, 인제군 등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였고, 경기도가 시·군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지원하면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포천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최근 수립된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전환을 계획의 비전이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한재각·이정필, 2017)

2.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방법론

- 기존 지역에너지계획이 전문가와 행정 중심으로 수립된 반면, 최근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형 방법론이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시민참여 분야와 의제의 스펙트럼은 넓지만, 시민참여 방식은 선호취합적 참여제도와 숙의적 참여제도로 나눌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시민참여 방식은 선호취합적인 특징을 갖는 반면 참여 과정을 중요시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상호작용과 의견의 변화가능성을 고려한 숙의적 참여 방식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김명진, 2005)
 - 대표적인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로는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시나리오 워크숍, 공론조사가 있으며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취사선택이 가능함

[표 2]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 개요

구분	주요 방식
합의회의 (consensus conference)	지원자 중 선정된 15명 내외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패널들이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 평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합의하여 발표하는 일종의 포럼. 시민 패널들은 해당 주제의 전문가들에게 질의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을 청취한 다음 내부 토론을 통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을 따름. 통상적으로 두 차례 예비모임을 하며 본 행사는 3~4일 동안 진행됨
시민배심원 (citizen's jury)	무작위 추출 과정을 통해 선정된 시민 15명 내외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이 4~5일간 모여 공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숙의하는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증언 과정에 참여하여 해결책을 토론하여 최종 의견을 정책 권고안 형태로 제출하게 됨
시나리오 워크숍 (scenario workshop)	주로 국가나 지역 수준에서 미래를 전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다루는데, 보통 15~30명의 참가자로 구성되며 주민, 기업, (지방) 정부, 전문가의 네 그룹이 균등하게 포함됨. 워크숍은 1박 2일로 진행되며, 첫째 날은 현황 분석을 토대로 각 그룹은 주요 요소들을 고려해 미래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토론을 통해 참가자 전체의 전망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둘째 날은 참가자들이 섞여 주제별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작성하고 각 행위자들의 과제 등을 담아 권고안(시나리오) 형태로 정리해 발표함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	공론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대중의 피상적인 태도 및 선호 조사에 머문다는 문제점을 숙의 과정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 과학적 확률 표집을 통해 대표성을 갖는 시민들을 선발해 특정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한 후 참여자들의 의견을 추적 조사한다는 점에서 대표성과 숙의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음

02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사례

1.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사례

● 제4차 대구시 지역에너지계획

- 시민참여 방식으로 세 가지 기법이 활용됨. 첫째, 시나리오 워크숍은 연구진과 시민사회단체가 에너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입함. 둘째, 기본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몇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진행됨. 셋째, 일반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장치로 공론조사가 고안됨

[표 3] 제4차 대구시 지역에너지계획 사례(2015년)

방법론	주요 내용	
공론조사	배경	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법정) 시민참여
	체계	경북대학교 주관,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	연구진-시민단체 시나리오 워크숍 포커스 그룹 미팅(4회) 시민참여단 공론조사(무작위 추출, 112명 선정, 1회 개최)
	특징	에너지 시나리오 선택형

● 제3차 전라북도 지역에너지계획

- 전라북도의 경우, 14개 시·군이라는 물리적 여건과 연구 예산 및 기간이라는 현실적 조건 때문에 깊은 시민참여 방법론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그 대신 조건에 맞게 시나리오 워크숍을 약식으로 진행할 방안(1회 개최)을 구상함. 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사업 발굴 및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행정부서)를 통해 전문가 워크숍(총 2회)을 운영함. 자문위원회는 도민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는 역할도 맡음

[표 4] 전라북도 제3차 지역에너지계획 사례(2016~2017년)

방법론	주요 내용	
시나리오 워크숍	배경	광역시도(14개 시·군) 지역에너지계획(법정) 시민참여
	체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주관,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
	과정	전문가 워크숍(자문위원회, 2회 개최) 시민사회·공무원 설문조사 도민 워크숍(참여자 모집, 35명 선정, 1회 개최)
	특징	에너지 시나리오·정책 의견 청취형

●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비전

- 2050년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을 위한 도민 참여 워크숍 프로그램의 설계 원칙은 학습(탈석탄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가능성, 에너지 일반 교양, 충남 에너지 현황과 문제점), 토론(참여 도민들 사이의 합리적 토론 문화, 의견 형성 및 의견 변화에 열린 자세), 숙의(다양한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 검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입장 확인), 선택(에너지전환 비전 선택, 바람직한 에너지 시나리오 선택)으로 결정함. 연구기관(충남연구원·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행정 부서(에너지전환팀, 도민새마을협력과), 영상팀(로컬 스토리),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퍼실리테이터의 협업을 통해 시민참여·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는 계기가 됨

[표 5]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수립 사례(2017년)

방법론	주요 내용	
시나리오 워크숍	배경	광역시도(15개 시·군) 장기 에너지전환 비전 시민참여
	체계	충남연구원 주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공동,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 추진단·실무단·지원단 구성 및 운영
	과정	도민 에너지기획단 워크숍(참여자 모집, 77명 선정, 3회 개최) 전문가·이해관계자 컨퍼런스(3차 워크숍 프로그램 포함) 도지사-에너지기획단과의 대화, 비전 및 시나리오 전달식
	특징	에너지 시나리오 선택형

● 전주시 에너지안전(자립)도시계획(지역에너지계획)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주관기관을 맡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기관으로 연구에 참여함. 특히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정보 수집 및 의견 수렴 그리고 시민 패널의 모집 등의 역할을 진행하였으며, 계획 실행 과정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2017년 제19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대통령상 수상)

[표 6] 전주시 에너지안전(자립)도시계획(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사례(2015~2016년)

방법론	주요 내용	
시나리오 워크숍	배경	중소도시 지역에너지계획(비법정) 시민참여 생태도시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체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주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공동,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 에너지자립도시 다올마당(민관거버넌스) 협력
	과정	포커스 그룹 미팅(1회 개최) 시나리오 워크숍(참여자 모집, 48명 선정, 3회 개최) 비전 및 시나리오 전달식
	특징	에너지 시나리오 선택형

● 광명시 에너지자립 및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 계획

- 광명시에 적용한 시나리오 워크숍 방법론은 전주시의 방법론이 그 원형이지만,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추진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표 7] 광명시 에너지자립 및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사례(2016~2017년)

방법론	주요 내용	
시나리오 워크숍	배경	중소도시 지역에너지계획(비법정) 시민참여 경기 에너지비전 2030 연계성 확보
	체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주관,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참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	시민간담회(상인, 교사, 주민, 각1회) 에너지시민회의(참여자 모집, 49명 선정, 3회 개최) 비전 및 시나리오 전달식, 비전 선포식
	특징	에너지 시나리오 선택형

03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1.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단계 설정

- 준비단계에서는 에너지 시나리오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진과의 대화와 소통이 중요함
 - 지역사회에서 추진된 시민참여의 흐름을 점검하고 관련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함
 - 지역사회의 현황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이슈를 확인하고 이해관계망을 조사함
 -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 및 협력체계를 마련함
 - 이를 종합하여 시나리오 워크숍 모델을 설계함
- 실행단계에서는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해 그 의미를 해석해 내는 일이 중요함
 - 설계를 마친 시나리오 워크숍 기획안와 체크리스트에 따라 홍보 및 모집계획을 추진함
 - 무작위 추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여론조사기관 혹은 의뢰기관과 협력하여 별도의 홍보 및 선정기준을 세워야 함
 - 추진 일정에 맞춰 시나리오 워크숍을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평가하여 진행방식을 개선하도록 함
- 평가단계에서는 실행단계에서 추적 조사했던 주요 쟁점과 결과, 그 변화 흐름을 밝히는 작업이 주요 과제임
 - 시나리오 워크숍의 결과를 반영하고, 최종보고서에 시민참여 전 과정을 분석적으로 서술함
 - 마지막으로 관련 거버넌스에 주는 시사점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최종 정리함

2.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프로그램 제안

● 충청남도 지역에너지계획

- 충청남도 도민 에너지기획단 워크숍의 경험과 기존 숙의적 시민참여형 에너지 시나리오 워크숍 방법론을 참고하여 도에 적합한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방법론을 구상함
- 도민 에너지기획단 워크숍은 에너지 비전과 에너지 시나리오를 선택하는데 특화되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범위를 담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모델과 결합할 필요가 있음
- 지역에너지계획에서 양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 과제 부분에 시민참여 범위 설정해야 함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총 4회로 구상함
- 무작위 추출이나 자원자 모집·선발 방식을 통해 참여 인원을 75~100명 목표로 선정함
- 전문가 워크숍을 적절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추가하여 그 결과를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종보고회 이후 지역에너지계획 비전 선포식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함

[표 8] 충청남도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프로그램

구분	시간	주요 내용
1차	4시간	위촉식 / 오리엔테이션 / 일반 교양
2차	5시간	에너지시스템 분석 / 에너지 시나리오와 지역에너지계획 이해
3차	5시간	전략과 목표 선택 / 정책 반영 및 정책 패키지 검토
4차	1박 2일	에너지 시나리오 검토 / 비교·쟁점토론 / 이해관계자 참석 컨퍼런스 에너지 시나리오 선택 및 보완 / 전달식 및 기자회견
5차	2시간	비전 선포식(도민 패널 초청)

● 시·군 지역에너지계획(A유형)

-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야 함. 우선 도시형·농촌형 구분, 시민사회 활성화 수준, 석탄화력발전소 유무, 에너지다소비업체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음
- A유형은 도시형이거나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 적합하고, 석탄화력발전소나 에너지다소비업체가 많은 경우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참석 컨퍼런스를 포함하는 방안을 권장
- 에너지 시나리오 워크숍과 병행하여 전문가 워크숍을 기획하여 운영(2~3회)하는 것을 추천함.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전 과정에 대한 자문 역할도 부여할 수 있음
- A유형은 전주시와 광명시의 시나리오 워크숍과 유사하게 설계하되 학습, 토론, 숙의, 선택을 위해 휴식 시간이 충분하게 보장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함

- 총 4회 워크숍을 기획하고 참여 인원 목표는 30~75명을 기준으로 설정, 시민 패널은 지원자 모집을 통해 선정해도 무방함
- 충청남도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지역에너지계획에서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정책 과제 부분에 대한 시민참여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9] 시군 속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프로그램(A유형)

구분	시간	주요 내용
1차	4시간	위촉식 / 오리엔테이션 / 일반 교양
2차	5시간	에너지시스템 분석 / 에너지 시나리오와 지역에너지계획 이해
3차	5시간	전략과 목표 선택 / 정책 반영 및 정책 패키지 검토
4차	1박 2일	에너지 시나리오 검토 / 비교·쟁점토론 / 이해관계자 참석 컨퍼런스 에너지 시나리오 선택 및 보완 / 전달식 및 기자회견
5차	2시간	비전 선포식(시민 패널 초청)

● 시·군 지역에너지계획(B유형)

- B유형은 A유형처럼 총 4회 워크숍을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검토할 수 있으며, 타운홀 미팅이나 전문가 워크숍 이상의 속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방안으로 제시함
- B유형도 도시형이거나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 적합하고, 석탄화력발전소나 에너지다소비 업체가 많은 경우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참석 컨퍼런스를 포함하는 방안을 권장
- 농촌형이거나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연구기관과 행정부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사회를 조직화하면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럴 경우 좀 더 느슨하게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음. B유형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워크숍과 병행하는 것을 추천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비전 선포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총 3회 워크숍을 기획하고 참여 인원 목표는 30~50명을 기준으로 설정함. 마찬가지로 시민 패널은 지원자 모집을 통해 선정해도 무방함

[표 10] 시군 속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프로그램(B유형)

구분	시간	주요 내용
1차	5시간	위촉식 / 오리엔테이션 / 일반 교양 / 에너지시스템 분석
2차	5시간	에너지 시나리오와 지역에너지계획 이해 전략과 목표 선택 / 정책 반영 및 정책 패키지 검토
3차	5시간	에너지 시나리오 검토 / 이해관계자 참석 컨퍼런스 에너지 시나리오 선택 및 보완 / 전달식 및 기자회견
최종	2시간	비전 선포식(시민 패널 초청)

● 시·군 지역에너지계획(C유형)

- C유형은 B유형과 같이 총 3회 워크숍을 진행하기 무리가 있을 경우 검토할 수 있으며, 타운홀 미팅과 전문가 워크숍을 병행하여 낮은 수준에서라도 숙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방안으로 제시함.
- 전문가 워크숍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전문가와 공무원, 기업, 지역사회 대표, 연구진 등이 참석하는 시나리오 워크숍(3회)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타운홀 미팅(2회)은 A와 B유형에 비해 숙의성과 몰입도가 부족하더라도 어느 곳에서든 충분히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물론 여건에 따라서는 전문가 워크숍과 타운홀 미팅 중 하나의 방식만 선택하거나 두 방식을 병행하더라도 횟수를 줄여서 추진할 수도 있음
- 타운홀 미팅의 경우는 선행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연구기관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참석 인원은 20~50명 선이 적당하다고 판단됨

[표 11] 시군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프로그램(C유형)

구분	시간	주요 내용
전문가 워크숍 1차	3시간	오리엔테이션 / 현황 분석 / 미래 시나리오 작성
타운홀 미팅 1차	3시간	오리엔테이션 / 현황 분석 및 이슈 발굴
전문가 워크숍 2차	3시간	행동계획 및 주체별 과제 작성 / 에너지 시나리오 작성
타운홀 미팅 2차	3시간	비전과 목표 검토 / 정책 제안 및 아이디어 제공
전문가 워크숍 3차	3시간	지역에너지계획(안) 검토 의견

04 정책 제언

1. 전제 조건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시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 각 시·군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비전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함
 - 정부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2016년)을 준용하면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민참여 방안을 구상해야 함
 - 어떤 시민참여 모델을 선택하더라도 시민참여 제도화 수준은 정보 제공과 협의에서 개입과 협업, 나아가 권한부여로 확대되어야 함
 - 시민참여 설계 과정에서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관련 계획의 내용적 범위 중 어디까지 다루느냐하는 범위의 문제를 선결해야 함
 - 지역의 에너지 비전 및 에너지계획 수립에 적합한 참여 방법론은 내용상으로는 시나리오 워크숍이 적합하고 형식상으로는 합의회의가 바람직함
 -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려면 무엇보다 에너지 자치분권이 보장되어야 가능함

2. 정책 제언

-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집행을 실효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자치분권이 실현되어야 함
 - ‘자치분권 없이 에너지전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도 에너지 자치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음. 시민참여형으로 수립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지역에너지계획에 대한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에너지 자치분권이 보장되지 않은 근본적인 한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음

- 둘째, 중앙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하며, 가능한 폭넓게 시민사회와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함
 -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너지 전환·자립을 추동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법·제도 개선과제를 역제안하고 있음. 특히 계획 수립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발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시·군 차원에서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충청남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2016)을 참고하되 충청남도의 지역 실정을 반영하고 숙의적 시민참여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셋째, 연구 집단, 시민사회단체와 민관 거버넌스 기구의 능동적 역할도 중요한 과제임
 - 충청도에는 충남연구원과 대학교 등 다양한 연구 집단이 존재하며, 에너지전환을 실천하고 시민참여에 능숙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조직들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서 중 담당 부서와 협업은 협치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음
 -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연구진 이외의 다양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이 시민참여의 성패를 좌우함. 따라서 향후 설립될 충청남도 ‘에너지센터’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를 주요 업무로 설정하고, 그중에 하나로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의 역할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음. 의회는 행정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권력구조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을 비롯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치 틀이 마련되어야 함

박 진 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02-6404-8440, minerba64@naver.com

이 정 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02-6404-8440, scmaru3440@hanmail.net

김 남 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02-6404-8440, econyk@gmail.com

* 본 글은 충남연구원 전략과제(2017년)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방법론 연구’를 일부 발췌하여 요약한 것임

- 김명진. 2005. “숙의적 시민참여 제도의 유형과 절차”. 「시민참여제도 소개 강좌」 3 자료.
- 김환석. 2011. “과학 기술 민주화의 이론과 실천”. 시민과학센터. 『시민의 과학』. 사이언스북스.
- 산업통상자원부. 2016.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에너지경제연구원.
- 이상대·정유선. 2015. 「시민참여 도시계획의 제도화 방안」. 경기연구원.
- 이영희. 2011. “기술과 시민”. 시민과학센터. 『시민의 과학』. 사이언스북스.
- 이정필·한재각. 2014. “영국 에너지전환에서의 공동체에너지와 에너지시티즌십의 함의.” 『환경 사회학연구 ECO』 제18권 제1호.
- 한재각·이정필. 2017. “기초지자체의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Enerzine Focus』 77호.
- Rüdinger, A. 2017, “Local Energy Ownership in Europe: An exploratory study of local public initiatives in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Energy Cities.